

재만 조선인 시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인식과 만주성 연구

김 영 주*

차 례

- | | |
|----------------------|---------------------|
| I. 서론 | IV. 애국시인의 성공 욕구와 좌절 |
| II. 이방인 경험과 정착 욕구 | V. 결론 |
| III. 환상에서 유리된 현실의 발견 | |

국문초록

만주국은 열강들의 식민지 확장이 잠정적이거나 마무리 지어진 상황에서 뒤늦게 출현한 까닭에 일제의 식민지라는 자명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독립국임을 선포하기에 이른다. 만주국 정권은 국민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오족협화나 왕도낙도와 같은 건국 이데올로기를 유포하고 일부 정책에서 그러한 이념을 현실화하려는 모습도 보였으나 대부분 허위적인 국가관에 그치고 마는 양상을 보인다. 본고는 이러한 이상적인 국가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는 만주국의 특성을 환상 공간으로 파악하고 이와 더불어 제국주의의 야욕과 횡포 앞에 언제든지 균열을

* 부산대 박사과정 수료

드러내는 측면 또한 간과할 수 없음을 주목한다. 또한 만주국의 환상 공간으로서의 면모와 그에 내재된 균열 양상을 지칭하여 만주성이라고 명명하고 재만 조선인 디아스포라 시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만주성을 형상화하였는지를 연구한다.

재만 조선인 시인들은 이방인의 향수와 비애를 품으면서도 만주 땅에 정착하여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만주국이 선전하는 환상 공간은 현실과는 유리된 것이었고 애국시민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도 좌절되기 일쑤였다. 이러한 현실 비판 의식과 좌절감은 재만 조선인 시문학으로 표현되었고 이것은 결국 만주성을 재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만주국의 이중적인 측면을 포착하는 데 있어 재만 조선인 시인들은 해안을 지녔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어느 곳에도 소속될 수 없는 디아스포라의 위치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주제어 : 재만 조선인, 만주성, 환상 공간, 균열, 향수, 정착 의지, 현실 비판, 성공 욕구, 디아스포라

I. 서론

1931년 발발한 만주사변에 기인한 만주국의 출현은 이 지역을 둘러싸고 벌여온 강대국들의 각축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며 만주 영토에서 일본의 주도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불러오게 된다. 이러한 사태는 일본이 아시아를 전횡하며 결국 청일 전쟁이나 태평양 전쟁을 도발할 빌미를 제공한다.¹⁾ 만주국은 일본의 식민지 중 하나였으나 독특하게

1) 윤휘탁, 「만주는 동아시아에서 어떤 곳일까」, 『만주 - 그 땅, 사람 그리고 역사』, 고구려연구재단 편, 고구려연구재단, 2005, 15-18쪽 참고.

도 형식적이거나 독립국으로 자리하여 소위 괴뢰국으로 존재하였다. 그러나 만주국을 단순히 괴뢰국으로만 바라보면 다른 식민지들과 매우 다른 제도적 장치를 포착할 수 없게 되기에, 비록 형식적이었지만 만주국의 주권적, 문민적 국민국가로서의 위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²⁾ 만주국이 건국이념으로 내세운 오족협화와 왕도낙토의 정치는 다분히 이상적인 것이어서 재만 조선인에게 유토피아를 꿈꾸게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이데올로기는 실제적인 것이 아니어서 언제든지 제국주의의 야욕과 횡포 앞에 균열³⁾을 드러내기 마련이었다.

만주국이 지니는 이러한 이중적인 측면, 즉 형식적이거나 이상적인 이데올로기를 제시하는 환상 공간으로의 면모와 식민주의의 현실이 보여주는 환상의 균열 측면을 동시에 고려할 때, 재만 조선인의 디아스포라로서의 복잡한 입장과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그들의 문학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균열을 내재한 환상 공간이라는 만주국의 특성을 ‘만주성(滿洲性)’⁴⁾이라 명명하고, 재만 조선인의 디아스포라 인

2) 한석정, 『개정판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동아대학교 출판부, 2007, 20쪽 참고. ; 프래신깃트 두아라, 한석정 옮김, 『주권과 순수성 - 만주국과 동아시아적 근대』, 나남, 2008, 128쪽 참고.

3) 두아라는 만주국의 비전을 이상적이면서도 식민적이라는 이중성으로 설명한 바 있다.(프래신깃트 두아라, 위의 책, 132-141쪽 참고.)

4) ‘만주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 사이드가 말한 ‘-성’ 혹은 ‘-ism’이라는 명명이 지닌 위험성, 즉 역사나 다른 관련 지식을 배제하여 타인의 경험을 경시하는 논리에 대한 지적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사용하는 ‘만주성’은 환상의 이면에 배태된 균열을 읽어낸다는 측면에서 이미 일방향적인 논리가 지닌 위험성에 대한 사이드의 지적과 우려를 극복하고 있다고 본다.(에드워드 W. 사이드, 김성곤, 정정호 옮김, 『문화와 제국주의』, 창, 2011 개정판, 87-88쪽 참고.) 만주성이라는 용어는 『만선일보』에 실린 채만식의 짧은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만주 조선 문단의 건설을 위한 안수길의 『滿洲에도 일즈기 朝鮮文學이 잇섯다』라는 글과 함께 몇 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실린 채만식의 글에는 “滿洲에서 發生할 朝鮮文學이라면...朝鮮의인 滿洲性을 가진 것이겠지요”라는 언급이 있는데, 문맥으로 볼 때 그가 말하는 만주성이란 말 그대로 만주의 특성을 일컫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만선일보』, 1940년 2월 1일 4면) 본고에서는 만주의 특성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좀 더 구체화하여 균열이 내재된 환상 공간이

식이 시문학에서 만주성의 재현으로 연결되는 양상을 연구하는 데 목표를 둔다. 이러한 연구 방식은 디아스포라 관점에 기대고 있는 기존의 재만 문학 연구에서 진일보하는 것으로써 만주국의 이중적 특성을 고려하여 재만 조선인 시문학의 복잡하고 다양한 면모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본다.

II. 이방인 경험과 정착 욕구

만주로 떠난 조선인들은 만주국의 환상적 이념 공세와는 별개로 실제 삶에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풍토와 기후의 차이와 일체의 수탈적 횡포⁵⁾, 거기에 조선인을 바라보는 본토인들의 곱지 않은 시선⁶⁾까지 더해져서 농사를 짓기 위해 떠난 이주가 대부분이던 조선인들은 시련을 겪게 되었다. 더구나 이주를 한 이후에도 만주를 새로운 정착지

라는 뜻으로 ‘만주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 5) 예를 들어 만주국이 농민의 토지를 빼앗았던 개척 용지 매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증언이 있다. “지린성 화톨(樺甸)현 조선인 농민 - 갈 곳도 없는 우리들에게 11월이나 12월경에 가옥을 넘기라는 것은 간접적으로 우리들을 죽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실로 슬픈 일이다. / 지린성 어무현 중국인 농민 - 비척은 금품을 약탈하지만 땅까지 빼앗지는 않는다. 만척은 농민 생활의 기초가 되는 토지를 강제 매수한다. 토지를 잃는 것은 농민으로서 가장 고통스런 것이다.”(야마무로 신이치, 윤대석 옮김, 『키메라, 만주국의 초상』, 소명출판, 2009, 272-273쪽)
- 6) 재만 조선인은 일본인의 눈에는 자신들에게는 비굴하면서도 중국인에게는 품을 잡는 ‘교활한 노예’로, 중국인의 눈에는 ‘일본인의 앞잡이’로 인식되는 일이 다수였다.(윤휘탁, 「〈만주국〉의 2등 국(공)민, 그 실상과 허상」, 『역사학보』 169, 역사학회, 2001, 3, 169쪽 참고.) 또한 만주국 정부는 민족협화는커녕 민족 간의 반목, 이간을 도모하는 것을 통치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한 일본인의 『복무수지』를 보고 적어둔 왕쯔형이라는 사람의 메모에는 “조선민족과 한민족 사이는 소원하게 해야 하지 친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글귀도 있어 당시 정책상 조선인과 중국인 사이에 반목과 질서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야마무로 신이치, 위의 책, 269-270쪽 참고.)

로 생각하기 보다는 일시적인 거처이자 생업을 위해 머무르는 곳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서 현지 적응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조향심(造鄕心)보다 귀향심이 훨씬 앞서 있었던 것이다.⁷⁾ 따라서 재만 조선인들에게 만주는 여전히 고향이 아닌 이방으로 여겨졌고, 그 결과 이방에서 느끼는 나그네의 향수가 재만 조선인 시에서는 자주 드러난다.

예를 들어, 리경희의 시 <北極의 하소연>(『만선일보』, 1939년 12월 20일)은 “안타까운 고향생각 달랠길업서 / 저하늘 바라보며 눈물집니다”라며 나그네의 한탄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다. 김달진의 시 <향수>(『재만조선시인집』)에서도 “鄉愁가 슬프고나”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참으려 해도 참을 수 없는 “무엇을 원통 잃어버린듯”한 공허감 속에서 향수에 침잠하는 시인의 모습이 나타난다.⁸⁾ 이들의 향수가 이토록 심각한 이유는 새롭게 정착하려는 재만 조선인의 시도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고달픈 현실에서 찾을 수 있다.

김규은의 시 <放浪吟草>⁹⁾에는 나그네의 심정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는데, 이방인을 대하는 객사 주인의 냉정한 태도를 짐작해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죽음까지도 상상해보는¹⁰⁾ 화자의 외로운 신세를 유추

7) 김경일, 윤휘탁, 이동진, 임성모, 『동아시아의 민족이산과 도시』, 역사비평사, 2004, 259-261쪽 참고.

8) 시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찬 벼개 우에 여윈 가슴 어루만지며 / 흘러간 내 나이 되푸리해 오이어 보면 / 늦 가을 靑昏 못물속으로 가만히 떠오르는 흰 蓮 꽃처럼 피어나는 / 鄉愁가 슬프고나 / 鄉愁가 슬프고나. // - 어름같이 차야할 나의 漂泊의 꿈이었거니. // 이제 새삼 뉘우쳐 깨침이 앓이기에 / 다시 反芻해 볼 슬픔도 없는 서글픔. // 문득 알수없는 무엇을 원통 잃어버린듯 / 어둠속에 귀 기우려 心臟소리 들어보다.”(김달진, <鄉愁>중에서, 『재만조선시인집』)

9) 시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알아누워 / 사흘되니 / 주인이 / 죽을가 싫어하네 // 이- 숙이 / 바늘 구녕 같은 친구여 / 내 자네 방 신세 / 아니 지네 // 죽게 되면 / 산에나 들에 가 / 내 무덤 내 파고 / 드러놓는다네 / (元山客舍에서)” - 김규은, <放浪吟草>중에서, ‘病床’(『북향』 2호)

10) 김규은의 <放浪吟草>는 세 편의 연작시인데, ‘산길’이라는 소재목의 시에는 이방에서의 죽음이 얼마나 허무한가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여기가 어디냐 / 둘러보니 / 樹海萬傾이로구나 // 이런데서 / 내가 죽으면 / 白骨도 못 찾겠네”

할 수 있다. 김례삼의 <그와 나>¹¹⁾(『인생의 고행길』)라는 시에는 “고달픈 품팔이 신세”의 “떠도는 사나이”가 화자로 등장한다. 이 화자는 앓아 누워있는 벼를 돌보고 있는데 유사한 경험을 공유한 사람끼리의 연민이 드러나 있다. 마지막 행에서 “아, 객지생활이란 쓰고도 써라!”라고 하는 직접적인 감정 표출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면을 통해 조선인의 암담한 현실을 살펴 볼 수 있다. 이방에서의 비참한 경험들은 반복되며 재만 조선인의 민족적 비애와 자괴감으로 확장된다.

나는 한귀人이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적 물려받은
 道袍 같은 슬픔을 나는 입었소
 벗으려도 벗을 수 없는 슬픔이요
 - 나는 한귀人이요
 가라면 어디라도 갈
 - 끼우리팡스요
 - 유치환, <道袍>중에서(『생명의 서』)

“끼우리팡스”¹²⁾는 조선인을 비하하여 쓰는 말인데, 위의 시에서는 스스로를 끼우리팡스라고 칭하며 “벗으려도 벗을 수 없는” 민족적 비애를 표출하고 있다. 망국의 상황에서 먹고 살기 위해 떠난 조선인들은 가진 것 없이 고단한 삶을 영위해 나갔고 그들의 집단촌을 묘사한 대목을 보면 그 비참상은 극심하였다.¹³⁾ 끼우리팡스라고 부르며 조선인을 무시

11) 시 말미에 1938년 12월이라고 작성 날짜가 밝혀져 있으며, 시가 수록된 『인생의 고행길』이라는 시집은 1994년에 연변인민출판사(연길)에서 발간되었다.

12) ‘끼우리팡스’는 ‘고려방자’의 만주식 독음이다. ‘고려방자’는 시의 하단부 각주에 밝혀져 있듯이 高麗房子, 즉 조선 사람을 천시하여 부르는 말이다. 망국민과 거지를 합한 말이며 재만 조선인을 비하한 용어이다.

13) 일례로 만주국의 도시 가운데 가장 발달했던 봉천시의 조선인 밀집 지역은 “난잡절정”의 추태만상이었다고 한다. 『만선일보』(原邊生, 「都市의 面目을 維持하라」, 1940년 9월 1일 4면)에 따르면 조선인 부락 가족들은 내부가 들여다보일 정도로 처참하고 불결했으며 거기에 거주하는 조선인들 역시 추태의 온상으로

하는 상황에서 조선인은 민족적 자괴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조선인을 전형적인 부정적 모습으로 재현하는 사회적 분위기나 언론의 역할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데리다의 말처럼 정체성이라는 것은 고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변모하여 나아가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디아스포라로서의 재만 조선인을 정체화 과정에 놓인 존재가 아닌 고정적인 정체성으로만 그리려 한 전형적인 묘사와 평가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왜곡되었거나 과장된 것도 많다.¹⁴⁾ 현실에서 부딪히는 실제의 고난과 부정적으로 덧씌워진 틀 속에서 재만 조선인 디아스포라들은 이중고를 떠안고 민족적 비애와 자괴감에 쉽게 빠져들었다. 그렇지만 재만 조선인들 모두가 이러한 상황에 밀려 현지에 적응을 하지 못하였던 것은 아닌 듯하다.

고향을 그리워하고 이방인의 신세를 한탄하며 현실적 고난을 표출하는 것 외에도 재만 조선인 시인들이 표현한 시세계는 다양하게 전개된다. 이러한 작품에서 조국이나 민족은 보류되기 마련인데, 그렇다고 해서 간과한다면 재만 조선인들의 복잡하고 다양한 삶과 문학의 양상을 놓치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惡이 녹쓰른 鄉土 더러운 心臟을 찌나서
白雲아 내 너싸라 어데고 가고시퍼

새나라로
새나라로
가비여이 나래치는 네등에업퍼
航海圖를 퍼들고숫업시 가고십다

비취졌다고 한다.(김경일, 윤희탁, 이동진, 임성모, 앞의 책, 164쪽 참고.)

14) 비조선계 신문의 경우, 조선인은 사악한 뉴스의 수식어로 등장하였다. 조선인이 일으킨 사소한 사건도 크게 확대되어 보도되고, 조선인은 중국인을 선의의 피해자로 몰아가는 고리대금업자나 불법 도박꾼, 밀수꾼 등으로 묘사되었다.(윤희탁, 앞의 글, 165-166쪽 참고.)

(藝原同人에서)

- 김덕빈, <白雲에게>중에서(『만선일보』, 1941년 12월 8일)

위의 작품은 새 희망을 향하여 구름처럼 떠나가고 싶은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¹⁵⁾ 새로운 이상향을 꿈꾸고 있기에 비애나 좌절 같은 감정은 찾을 길 없고 긍정적인 희망의 감정만이 감돌고 있다. 이러한 시를 통해서 재만 조선인 시인들의 관심사가 조국이나 민족 지향적이지만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김덕빈의 시 <白雲에게>에 있는 “똥이 녹 쓰른 鄉土 더러운 心臟을 써나서”라는 시행은 고향을 부정하고 “새나라”로 가고 싶어 하는 화자의 심정을 대변한다. 새나라는 어떠한 곳인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짐작하게 하는 작품들도 있다. 신상보의 시 <흑과갓 치살갓소>(『만주시인집』)에는 농사를 짓기 위해 이주한 화자의 희망에 찬 심정이 나타난다.¹⁶⁾ 재만 조선인 시에는 이주 이후 농경에 몰두하며 정착에 힘을 쓰는 모습을 노래한 작품이 다수 존재하는데 이러한 작품에서 유일한 관심사이자 목표는 농토 개척과 풍요한 수확이며 정착에의 희망이다.

최분옥의 시 <大地의 母>(『만선일보』, 1940년 1월 11일)¹⁷⁾에는 개인의 편안한 삶은 뒤로한 채 농경에 몰두하는 여성 화자의 모습이 나타난

15) 이상향에의 동경을 떠가는 구름에 의탁한 작품으로 김동가의 <無題>(『만몽일보』, 1937년 7월 11일)라는 시도 있다. “가고 쏘 가고 쏘 다시 가도 / 끝업은 이 길을 어이다가랴 / 바람이 이어나 비가나리려나 / 한조각 구름만이 내맘을 감도 오 //...// 퇴스글만도 못한 人生이라 하오만 / 그러나 가고 쏘 가고 쏘다시 가노라면 / 現世를 解脫한 理想鄉이 / 疲倦한 우리손에 일우어지지 안호리까?”

16) 시를 일부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내밭에 미트리를 신고 / 내머리에 수건을 쓰고 / 한쪽 막아지에 목숨만 가지고 / 흘글차져 여기왔소 / 흘글파러 여기왔소 // 언제나 쓰난 해와함께 / 일하기 즐거울쑤 / 쌍파기 즐거울쑤”

17) 시를 일부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나는 벌써 짐승가티 입은 담었소. / 오늘도 얘기는 연분홍 살구꽃 / 나무 그늘에 잠재우고 / 보리 바테 김을매오. / 세로는 도야지떼를 몰고 썰로도나가오. // 썰 大地의 썰이관 生의만족 / 록음이 썰업은 大地는 기름지오. / 저기 누인애기, 쏘天下의 애기들의 / 락원을 이짜에 建設 함이 / 나의 唯一의 것בות이요.”

다. 시적 화자는 이민 2세들이 “락원을 이사에 建設 함”을 희망하며 자신은 “짐승가티 입”을 닫고 노동에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작품은 만주국의 낙토 이미지에 호응하는 것으로서 실제 삶에서 현실화의 가능성이 있었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만주를 낙토로 이미지화하는 작품은 ‘만주 유토피아니즘’¹⁸⁾에 경도된 것으로서 의사제국주의자의 포즈를 취하는 작품에서도 발견된다.

젊은 藝術家들이여!

建設을 위하여 名慾을超越하여마음껏 읊흐라 노래부루라 쏘한뼉을들
리라

새와 꽃과 사람을고르지말고

번개불가튼 情熱이한울을 싸개고

우레가튼 氣焰이 地軸을 울일째까지

- SSY, <氣焰>중에서(『만선일보』, 1940년 4월 19일)

오오-

大陸의理想이 竹筍처럼자란다

東亞의 오리지날이 썩리는씨여든

薰風萬里 하늘이드노프면

우리는 歡喜의 이삭을거두리라

지낸날은 한바탕 어수선한 白日夢

새로운 傳統이 썩리내리는

오늘은 다뭇나아가는時間

그랬타

18) ‘만주 유토피아니즘’이란 만주국의 신생이 주는 환상에 경도된 식민지 조선인들의 시류를 지적하여 김철이 적절하게 표현한 용어이다. 만주 유토피아니즘은 조선인에게 만주를 의사제국주의자로서의 포즈가 가능한 곳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김철, 「몰락하는 신생」, 『상허학보』 9, 2002, 8, 156-157쪽 참고.) 이러한 인식 하에서, 예시 작품들이 보이는 제국주의 담론의 모방도 가능한 것이었다.

建設이다!

創造다!

- 김복원, <젊은開拓士여>중에서(『만선일보』, 1942년 1월 20일)

SSY의 시 <氣焰>은 전반부에서 “우리에게는 오직 푸른한을建設의새 쌍 새거리가 오래전부터 기다리고있나니!”라고 하며 “젊은 藝術家들”이 거리로 나와 기쁨을 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더구나 “만나는사람과 곶과 새를 헤아리지말고” 예술가들이 새 세상을 위해 매진할 것을 권하는데 이것은 역사적 상황을 헤아리거나 민족적 의식의 발현은 접어두자는 의미가 된다. 김복원의 시 <젊은開拓士여>에서는 “지낸날은 한바탕 어수선한 白日夢”이며 “새로운 傳統”을 건설하고 창조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大陸의理想”이나 “東亞의 오리지날이 썩리는씨”와 같은 시어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만주국의 대동아공영 논리를 답습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만주국을 “새로운 傳統이 썩리내리는” 곳으로 파악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기 보다는 생산하는 언설을 통해 만주국의 이데올로기와 공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만주를 환상 공간으로 그리는 만주국의 식민지 담론을 반복적, 고착적으로 재현¹⁹⁾하는 모방에 불과하다.

19) 바바는 식민지 담론에서 정형화는 식민주의자와 피식민인 모두에게 유사한 환상과 방어의 상황을 연출한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정형화를 주어진 현실의 거지된 재현이면서 고착된 재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호미 바바, 나병철 옮김, 『문화의 위치』, 소명출판, 2002, 153-163쪽 참고.) 까오 유엔은 이러한 재현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인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1930년대 일본인의 만주 관광에서 일상적 도시와 연출된 도시의 면모를 과연 구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제기에서 출발한다. 애초에 연출되지 않은 도시의 진짜 모습 같은 것은 어디에도 없다는 결론을 내리며 식민지 도시의 일상이 어떻게 정치, 사회적 맥락에서 극장적 권력을 발휘했는가를 확인하고 있다.(까오 유엔, 「'낙토'를 달리는 관광버스 - 1930년대 '만주' 도시와 제국의 드라마투르기」, 요시미 슌야 외, 연구공간 수유+너머 '일본근대와 젠더 세미나팀' 옮김, 『확장하는 모더니티』, 소명출판, 2007, 210-213쪽 참고.)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연출된 도시의 모습은 환상 공간으로서의 만주를 보여주는 것이고, 연출되지 않은 진실은 없다는 것, 즉 모든 것이 재현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식민지 담론의 재현 방식을 모방

이상의 작품은 만주국을 환상 공간으로 그리고 있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부정적 상황을 포착해내는 시들도 있다. 예를 들어, 김춘하의 시 <뒷길로감이조타>는 욕망의 “이나라 이거리”를 피해 뒷길로 가는 것이 좋다는 표현을 통해 거짓의 현실과는 거리를 두려고 하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또한 백향의 <失樂의 밤都市>에서는 한 소녀의 불행을 묘사하며 대도시의 생활이 “죽어가고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²⁰⁾ 이렇게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보여주는 작품들은 결국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자세와 일맥상통하는 감이 있다.

III. 환상에서 유리된 현실의 발견

현실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파악하는 작품은 표리부동한 상황을 포착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피식민인의 담론이 식민주의자의 담론을 모방하면서도 균열을 일으키는 상황²¹⁾에 해당된다. 심련수의 시 <가난한 거리>(육필원고 1940년 4월 24일)에는 “누덕빨래 걸린 밭”에서 발버둥치

하는 피식민인으로서의 재만 조선인은 연출된 극장에 의식하지도 못한 채 출연하고 있으며 식민지 담론의 권력에 흡수되고 있다.

20) 시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질퍽이도 살은 慾望이 매양같으춧다는 이나라 이거리도 / 독한 거짓을마인 시름시름이 머물거니- 지거니 // 온길 임이 비린길에 선가실 그림자는 선가시 / 도 불으지마라 / 인제 무거운밤은 주린思念에 움힘입을 이즈리니” - 김춘하, <뒷길로감이조타>중에서(『만선일보』, 1940년 7월 31일); “썰렁이窓과 窓의 불이 / 하얏 둘 써진다 / 暗黑이다 / 大都市의 生活도 인제 / 죽어가고있다.” - 백향, <失樂의 밤都市>중에서(『만선일보』, 1940년 5월 22일)

21) “...모방의 양가성(거의 동일하지만 ‘아주 똑같지는 않음’)에 의해 만들어진 초과 혹은 미끄러짐은, 담론을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어떤 불확실성으로 변형되어 식민지적 주체를 ‘부분적’ 현존으로 고정시킨다. ‘부분적’이라는 말로 내가 의미하는 것은 ‘불완전성’과 ‘실제성’이다....따라서 모방은 닮는 것인 동시에 위협이기도 하다.”(호미 바바, 앞의 책, 180쪽)

는 “혈벗은 어린아이”와 “일에 쫓긴 이 거리의 사내” 등이 등장하는 “빛 잃은 좁은 거리”가 묘사된다. 그런데 마지막 시행에서 이 거리가 바로 “造幣局 뒷 골목”이라는 사실을 밝혀놓아 가난한 거리의 비참상을 대조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근대 도시의 면모를 갖춘 화려한 제국의 환상 공간 이면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한 현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피식민인들은 제국의 정치나 경제를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 식민주의자들에게 필요한 존재였지만 그들의 주의를 받을 필요는 없는 존재였다.²²⁾ 소모적이고 도구적인 존재인 피식민인들은 환상 공간의 표면에서 지워지고 이면에 배치되어야만 했던 현실을 <가난한 거리>가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와사리 맛걸리집 젊은니는
 두고알튼 心臟에 名藥을 먹고잇소
 캄캄튼아피 보이며 숨이 확폴리오

눈물겨운悔恨에 저즌
 지난날의 諸藥!

...

世紀의아침이 문을 두다리오
 大東亞의 黎明譜가 우렁차오
 어서 일터로 가야할 大東亞의黎明이요.
 (於鷄寧)

- 남승경, <黎明譜>중에서(『만선일보』, 1942년 2월 2일)

남승경의 시 <黎明譜>는 심장병을 앓고 있는 젊은이가 술을 마시고 회한 속에서 현실을 망각하고 있는 장면과 “世紀의아침이 문을” 두드리 는 “大東亞의黎明”이 밝고 있다는 상황, 즉 개인의 삶과 사회적 정황을

22) 제국주의자들에게 식민지는 재산, 미지의 공간, 기이한 인간, 부자가 되게 해주거나 환상적인 일들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이민, 돈벌이나 성적 방종과 관련 되는 장소였다.(에드워드 W. 사이드, 앞의 책, 134-135쪽 참고.)

대조시키 놓은 작품이다. 우렁차게 울리는 “大東亞의 黎明譜”는 바닥을 치는 개인의 현실과는 유리되어 대조가 되며 식민제국의 이념이 보여주는 허상의 한 단면이 되고 있다. ‘대동아’ 또는 ‘대동아공영’은 일본의 식민주의를 포장한 용어인데, 만주국을 비롯한 식민지에서 자주 사용되었고 전쟁의 미화 수단과 목표가 되기도 했으며 관련 문학 작품에서도 자주 인용되었던 정치적 개념이다. 이것은 푸코의 논의를 빌려 정리하자면, 인식의 전제로 기능하며 설명은 요구되지 않은 채 다른 사물을 설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인용되어 마치 실재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실정성²³⁾을 띤 용어가 된다. 이러한 “大東亞의 黎明譜”가 우렁차던 현실과 개인의 삶은 헤아릴 여유 없이 그 현실에 발맞추어 나아가야 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黎明譜>이다.

식민주의 담론과 관련하여 협력 여부의 논란 한 가운데에 놓여 있는 작품인 유치환의 시 <首>(『국민문학』, 1942년 3월, 『생명의 서』)²⁴⁾는 제국주의의 “律”과 “秩序”를 “保存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다분히 문제적인 것이 된다.²⁵⁾ 만주국은 경찰국가²⁶⁾라고 할 만큼 규율과 통제가 사회 저변 곳곳에까지 행사했던 공간인데 이러한 상황은 재만 조선인에게 불

23) 마루카와 데쓰시, 백지운, 윤여일 옮김, 『동아시아의 문화지정학 - 리저널리즘』, 그린비, 2008, 18쪽 참고.

24) 시 전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十二月의 北滿 눈도 안 오고 / 오직 萬物을 苛刻하는 黑龍江 말라빠진 바람에 헐벗은 / 이 적은 佳城 네거리에 / 匪賊의 머리 두 개 높이 내걸려 있나니 / 그 검푸른 얼굴은 말라 少年같이 적고 / 반쯤 뜬 눈은 / 먼 寒天에 模糊히 저물은 朔北의 山河를 바라고 있도다 / 너희 죽어 律의 處斷의 어떠함을 알았노 / 이는 四惡이 아니라 / 秩序를 保存하려면 人命도 雞狗와 같을 수 있도다 / 혹은 너의 삶은 즉시 / 나의 죽음의 威脅을 意味함이었으리니 / 힘으로 써 힘을 除함은 또한 / 먼 原始에서 이어온 피의 法度로다 / 내 이 각박한 거리를 가며 / 다시금 生命의 險烈함과 그 決意를 깨닫노니 / 끝내 다스릴 수 없던 無賴한 녀이여 瞑目하라! / 아아 이 不毛한 思辨의 풍경 위에 / 하늘이여 은혜하여 눈이라도 함뻍 내리고고.”

25) 박태일, 「청마 유치환의 북방시 연구 - 통영 출항과 만주국, 그리고 부왜시문」, 『어문학』 98, 한국어문학회, 2007, 12, 329-332쪽 참고.

26) 한석정, 앞의 책, 105-110쪽 참고.

이익을 가져다주기 쉬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시인이 만주국의 질서 유지를 위한 장치에 동의하고 있다면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이 시에서 강조되는 것이 ‘질서’ 그 자체가 아니라 질서 유지를 위해 “피의 法度”를 행하고 있는 현실의 윤리적 피폐함이라면 문제는 달라질 것이다. 시의 전반부에서 비적을 효수하여 놓은 모습을 보고 도덕적 판단을 내렸다면, 후반부에서는 그러한 거리를 “각박한 거리”, “不毛한 思辨의 풍경”이라고 윤리적 언급을 하고 있다. 시의 주안점이 전반부의 전경 묘사나 해설이 아니라 후반부의 윤리적 판단에 있다고 할 때 이 작품은 전혀 다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首>는 제국주의의 실정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국주의가 보이는 힘의 행사에 의해 삶이 윤리적으로 각박하며 불모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 따라서 만주국이라는 환상 공간에 균열을 내는 존재는 비적이 아니라 윤리의 부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국주의가 보이는 윤리의 부재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다음과 같은 풍자적인 시도 있다.

부처殺生말았거늘

오늘의 승려

戰爭을 聖戰이라오

산 遺骨

마음 밤인양 캄캄하오

明日!하고 머리드니

가업시 푸른하늘

- 장기선, <寸感>중 ‘2. 矛盾’ (『만선일보』, 1940년 4월 15일)

만주는 일본의 미디어 이벤트에 의해 위령 공간으로 탄생하였다. 만주를 위령 도시라는 기억 장치로 활용하는 관광 코스도 있을 정도로 전쟁과 만주는 연관이 있었다. 물론 만주 사변 이후 일본인의 만주 관광은 근대 도시 관광 쪽으로 무게를 기울여 갔지만²⁷⁾, 위령 공간이든 근대 도시의 실험 공간이든 만주는 제국주의의 미디어에 의해 재현된 공간이었

다는 것, 그 결과 대동아공영이라는 허울 아래 파국의 전쟁으로 치닫는 핵심에 만주가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은 전쟁 기지로서의 만주의 위치를 확인시켜 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기선의 시 <寸感>은 전쟁을 찬양하는 현실을 풍자하고 있어 전쟁의 위업을 강조하던 만주국의 환상성에 균열을 발생시키고 있다. 현실에 편승하기 위해 살생을 금하라는 가르침을 뒤로한 채 ‘聖戰’이라는 말로 전쟁을 찬미하는 승려를 비판하는 것으로써 전쟁을 선동하고 젊은이를 사지로 내몰며 전쟁의 당위성을 위해 전쟁을 미화하는 제국주의의 만행을 고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비판적 작품은 발표 지면을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비판성이 심각하여 만주국 정책과 부합하지 않을 때는 발표를 하지 못하거나 개작을 하기도 하였다.²⁷⁾

짜락는 사분사분……호젓한밤 겨등은 불쑥을 느린다.

빈방을 직히시는 하라바니 옥취 속갱이로 등을 글그시며 아릅드리 그림을 띄신다. 퍼신단다

큰아매 무릅베고 베고 불이미어지게 감자먹든 장손일랑 호랑이 옛말에 취해잔다. 코를 곤다.

27) 임성모, 「팽창하는 경계와 제국의 시선 - 근대 일본의 만주 여행과 제국의식」, 『일본역사연구』, 일본사학회, 2006, 98-110쪽 참고.

28) 대표적으로 김조규 시인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김훈겸은 “미발표된 시들은 주로 고통받는 유,이민의 현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는 민족의 강인함, 그리고 자신의 역사의식을 형상화하고 있다. 반면에 만주문단에 발표된 시들은 ‘이국정서’, ‘향수’, ‘비애’, ‘외로움’ 등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어 미발표작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라고 김조규의 미발표 작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김훈겸, 「재만조선인 시문학의 디아스포라적 양상 - 일제말기 유치환, 김조규의 시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28, 한국언어문화학회, 2005, p.165) 신주철은 김훈겸의 연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김조규의 시를 발표와 미발표, 만주에서 발표한 것과 조선에서 발표한 것으로 나누어 정치적 이유에 의해 이중적인 양상으로 시를 쓸 수밖에 없었던 시인의 궤적을 연구한 바 있다.(신주철, 「김조규의 이중적 시 쓰기의 양상과 의미 - 만주 이주 후-해방 전 작품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32, 우리문학회, 2011, 2.)

짹짜리 지러가신 아배는 안돌아오고 닭이 두해를 쳐도 문풍지가 울어
싸도 곱새등 누님과 재미는 바느질로 날샌다.

작년에도 그러께도 이런 이런날 호우적이 마을에 들어섰다 새벽 이른
새벽역에.

於吉林

- 천청송, <밤>(『만선일보』, 1941년 3월 1일)

겨등불은

문풍지와함께 썰고

웃고방 하라바니는

옥수숫갱이로 등을 글으

시며

대통을 문턱에다 터신다

큰아매 무릅베고

감자먹든 장손일랑

범이야기에 취해 코곤다

짹짜리 지러가신 아버는

안오고

달기두해를치도

곱새등 누님과 재미는삼

삼기에 밤을 샌다

작년에도 이런 이런겨울

밤

눈보래가 몹시 이주몹시

사나웠다.

- “밤”의 改作

- 천청송, <冬夜>(『만선일보』, 1942년 2월 23일)

위의 두 작품은 천청송이 같은 지면을 통해 대략 일 년 정도를 사이에

두고 변개하여 발표한 시들이다. 시인이 <冬夜> 말미에서 밝히고 있듯이 <冬夜>는 <밤>을 개작한 것이다. 달라진 점은 <밤>이 평화로운 농촌의 정경을 그리고 있다가 후반부에서 ‘호우적’을 출현시켜 시적 긴장감을 유발하는데 반하여 <冬夜>는 그러한 전환 없이 하나의 정조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개작하여 발표한 이유로는 무엇보다 시인의 원작에 대한 애착을 들 수 있다.²⁹⁾ 또 다른 이유를 밝히기 위해 역사적인 상황을 개입시켜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일본이 벌인 세계 전쟁 상황을 고려해서 보는 방법이다. 두 작품 사이에 놓이는 사건으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공격이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미국은 일본과의 본격적인 전쟁을 개시하게 되었고 조선의 언론도 1942년 당시 최대의 사건으로 진주만 기습을 들고 있다.³⁰⁾ 따라서 일제의 세계 정복 야욕이 만주국 점령 기간 내내 전시 분위기를 들끓게 했지만 무엇보다도 진주만 공격 이후에는 더욱 치열해졌을 것이고 그러한 분위기가 한 시인의 작품 세계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해석된다. 전시 상황은 내부의 균열을 삭제한, 전일된 모습의 동원 체제를 요구했을 것이다. 따라서 ‘호우적’의 출현으로 만주국의 환상적 이미지가 훼손되고 민심 흉흉한 상황으로 비춰질까 의식한 시인이 의도적으로 내분의 요소가 있는 상황은 배제하는 방향으로 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환상 공간으로 만주를 그려내려는 시인의 이러한 모습은 제국주의의 담론에 자신을 맞추려는 모방의 양상이지만 오히려 두 작품의 달라진 모습은 시인의 내적 세계의 균열과 환상 공간을 강조하는 만주국의 균열상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29) 1942년 9월에 출간된 『만주시인집』의 <先驅民>중 ‘3. 雪夜’라는 작품 역시 같은 작품의 개작이다.

30) 1942년 1월에 발간된 『삼천리』 14권에 보면 “진주만 기습이 필두, 금년도 최대의 사건”이라는 제호 아래, 뉴욕 내신을 근거로 사건을 보도하고 있다.

IV. 애국시민의 성공 욕구와 좌절³¹⁾

재만 조선인에게 만주는 환상이자 절망인 공간이었다. 환상의 이데올로기는 공공연히 유포되었지만 절망적 상황은 환상 공간의 균열에서만 나타났다. 만주국의 이데올로기에 편승하여 개인의 영달을 꿈꾸던 자들을 아렌트의 용어를 따라 파브뉴라고 지칭할 수 있다.³²⁾ 재만 조선인 시 작품에서 이러한 파브뉴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들도 다수 존재하는데, 본고 II장에서 살펴본 SSY나 김복원의 작품이 그 예시가 된다. 그러나 환상의 이데올로기에 잠식한 파브뉴 역시 그렇지 않은 파리아와 마찬가지로 디아스포라인 이상, 배제의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그래서 파브뉴를 지향하는 삶 속에서 쓰인 작품에서조차도 균열의 징후는 드러난다.

나는 나를 사랑하며 / 나의 안해와 자녀들을 사랑하며 /.../ 나의 일본
- 조선과 만주를 사랑하며. / 동양과 서양과 나의 세계를 사랑하며.

31) 본장은 『어문학』 112호에 게재한 줄고 「재만 조선인 시문학의 만주성 재현 연구」와 부분적으로 중첩된다. 「재만 조선인 시문학의 만주성 재현 연구」가 재만 조선인 시문학 연구의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 글이라면 본고는 그에 뒤따르는 후속 연구로서의 각론 중 하나가 된다.

32) 파브뉴와 파리아는 한나 아렌트가 《The Menorah Journal》(1943년 1월) 「우리 난민들」이라는 글에서 Mr. 콘을 묘사하며 사용한 용어이다. 가는 나라마다 그곳에 동화되기 위해 150%의 애국시민으로 행동하고 성공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다수를 ‘파브뉴(Parvenu, 벼락부자)’라 하고,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언제나 법 바깥에 놓일 운명임을 직시하고 오히려 어느 국적에도 소속되지 않고 의식적인 천민으로 남기를 자처한 소수를 ‘자각적인 파리아(Pariah, 천민)’라고 한다. 조르조 아감벤은 「인권을 넘어」라는 글의 서두에서 ‘난민 및 무국적자’의 조건이 새로운 역사의식의 패러다임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 아렌트의 말을 인용한다.(조르조 아감벤 「인권을 넘어」의 번역 및 파브뉴, 파리아에 관한 정리는 양창렬, 김상운 번역의 「인권을 넘어」, 『오늘의 문예비평』 60, 2006, 봄, 234-235쪽 참고. ; 한나 아렌트 「우리 난민들」의 번역은 『수유너머 위클리』 45 참고.)

//...// 그뿐이라 푸른빛으로 자라나는 식물들과 / 산과 드을과 풀과 돌과
 흑과 그 외에도 / 내눈으로 보며 쏘 못보는 모든물건을 / 한업시 앓기고
 사랑하면서 한세상 살고싶다 / 그들이야 나를 돌아보든말든 그까짓일
 상관말고 / 내가 사랑아니할수업는 그런- / 한울갓치 바다갓치 크고 널
 분마음으로 살고싶다. 康德 九年

- 박팔양, <사랑함> 중에서(『만주시인집』)

박팔양의 시 <사랑함>은 “나의 일본- 조선과 만주”를 사랑한다는 발언을 통해 시인의 궤적과 내면을 돌아보게 할 만큼 문제적인 것이 된다. 시적 화자는 이 세상 만물을 사랑하는 삶, 즉 세계시민으로서 박애를 베풀고 싶어 한다. 그런데 이 사랑은 “그들이야 나를 돌아보든말든 그까짓일 상관말고 / 내가 사랑아니할수업는 그런-”이라는 전제가 있어 타자에 대한 배려로 포장된 일방적인 집착으로 보이며, 이것은 식민주의의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 하는 논리에 닿아있다. 화자가 지향하는 삶은 세계시민이 되는 현실의 논리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현실의 논리는 대동아 공영으로 포장된 식민주의의 팽창이며, 일제의 팽창을 위해 내선일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³³⁾ 박팔양의 개인사를 살펴보면 세계시민화의 논리를 펴는 시인의 입장이 좀 더 분명해진다. 박팔양은 창작 초기에 카프에 가담하였으며 비록 프롤레타리아 문학이 갖는 목적성과 경직성에 혐오를 느껴 카프에서 탈퇴하긴 하였으나 광복 이후 월북한 사실과 북한 체제 지향적 시편을 남긴 것으로 보아 그의 문학사적 자취에서 마르크시즘을 떼어놓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계급의식을 강조하는 프롤레타리아 문학은 민족이나 국가의 구별을 넘어서는 국제주의적 성격을 띤다. 박팔양이 마르크시즘의 국제주의적 특성을 일본 식민주의의 범아시아주의와 유사한 것으로 오해했다면 만주에서 대동아공영이 환기한 세계시민화의 논리에 쉽게 동조했을 가능성이 있다.

33) 김려실, 「인터/내셔널리즘과 만주」, 『상허학보』 13, 상허학회, 2004, 8, 418쪽 참고.

그런데 “그들이야 나를 돌아보든말든 그까짓일 상관말고”라는 구절은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에서 ‘그들’이 누구를 가리키느냐에 따라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핀 대로 ‘그들’은 화자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식민주의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식민주의의 주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식민주의자들이 나를 돌아보든 말든 그것은 상관하지 않겠다는 말은 자신의 무력감을 선량함으로 포장한 르상티망으로 보인다.³⁴⁾ 여기에 파브뉴의 균열이 있다. 애국 시민으로서 체제 지향적인 파브뉴는 지배자에게 사랑을 맹세하지만 그들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말로써 위안하려 한다. 그렇지만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즉 자신이 아무리 충성을 맹세해도 국민으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점, 더 나아가 그러한 고민으로 생긴 무력감을 애써 선량함으로 역전시킨다는 데에서 균열은 드러난다.

... 보람있는 삶을 바라 / 피땀을 흘려도 보았건만 // 아름답든 무지개
는 사라지고 / 悔恨의 눈물만이 흘러나리오 // 살여는 意慾은 / 내 마음에
傷處만 남기고 말었소이다.

- 천청송, <傷痕> 중에서(『만선일보』, 1940년 7월 27일)

깨여진 꿈의 조각을 / 하나하나 모아서 / 새해의 神아페 / 祭物로 드리
나이다 / 내게 曙光을 주시옵소서 ... 이싸우에 삶의뿌리를 박았슴이 /
당신과 나의 운명이온대 / 이흠의 냄새를 / 우리는 왜 사랑해서는 안되
는가요 // 내게서 눈물을 거두지마소서 / 눈물에 아로삭인 숨흘을 / 마

34) 니체가 말하는 르상티망ressentiment은 강자에 대한 약자의 반감이나 원한이 내 부로 향해져 울적해지는 상태를 가리킨다. 약자는 자신의 열등감에 대한 보상으로 자신의 무력감을 선량함으로, 비굴을 겸허로, 예속을 순종으로, 복수 불가능을 복수 하고 싶지 않음으로 역전시키는 도덕률을 찾아낸다고 한다. (고모리 요이치 지음, 송태욱 옮김, 『포스트콜로니얼 - 식민지적 무의식과 식민주의적 의식』, 삼인, 2002, 114쪽 참고.)

음의 課淵에 심은는 / 이픔을- 아릅니까 //.../ - 저쌍 과어바틀 매일
 연장을들고 / - 그도 저도 다가튼 무쇠이오매 / - 버리고 취할것을 모르
 오니 / - 내게 선택의 자유를 맞기지마소서
 - 손소희, <祈願> 중에서(『만선일보』, 1941년 1월 30일)

천청송의 시 <傷痕>과 손소희의 시 <祈願>에는 파브뉴의 삶을 지향했지만 현실과의 간극을 인식한 뒤 좌절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傷痕>에는 성공해 보려고 애썼으나 “살여는 意慾은 / 내마음에 傷處를 남기엇”으며 “아름다운 무지개”로 상징되는 성공한 국민의 삶은 좌절되고 말았다고 하는 독백이 드러난다. <祈願>에는 “이흠의 냄새를 / 우리는 왜 사랑해서는 안되는가요”라고 질문하며 틈새에 끼인 자신들의 존재적 고민이 드러나고 있으며, 선택의 자유 없이 그저 순종하며 살고 싶다는 파브뉴의 소박한 욕망이 나타나고 있다. 이 작품의 화자들이 파브뉴의 삶을 지향하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들이 결코 국민이 될 수 없기 때문이고, 이들이 국민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재만 조선인이라는 디아스포라적 위치 때문이다. 이렇듯 내부에 있는 외부로서의 존재, 어느 곳에서도 예외나 배제로서만 존재하는 자들³⁵⁾이 바로 디아스포라이다.

이러한 경계에 끼인 존재들의 내적 상황은 비정상적일 수밖에 없다. 다음의 작품에 드러난 시적 화자는 울다가 웃는 모습으로 감정을 정리할 수 없는 분열적 양상을 드러낸다.

純하고 弱한 良心을 버리지 못한채
 버레먹는 가슴을 어루만진지 벌써 몇해이드나

山峽에 여름이- 지터도 늘 내맘은 음산하야
 북새 이는 하늘을 날릴갈 새에게 노래도 못傳했노라

35) 아감벤은 이러한 위치에 놓인 존재를 호모 사케르라고 지칭하였다.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옮김, 『호모 사케르 -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새물결, 2008.)

嶺위거나 산모퉁 길에 幸여 어느 消息을 그러
어머니가 차져주신 축축한 新聞을 뒤적거리며

문득 限업시 울고 십기도 하고!
다시 썰 썰 썰웃고 십기도 하고……

- 허민, <孤情>중에서(『만선일보』, 1941년 12월 17일)

시적 화자는 고즈넉하게 자연 속에서 지내고 있는 은둔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세속의 끈을 모두 놓아버린 상태는 아니기에 신문을 뒤적이며 ‘어느 消息’을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어떠한 내용인지 분명하지는 않으나 화자의 칩거 이유에 해당하는 ‘純하고 弱한 良心’과 관련이 있는 사연일 것으로 추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 양심 때문에 화자의 마음은 늘 음산하고, 따라서 현실과 조화를 이룰 수 없으며 고립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시적 화자는 한 없이 울고 싶거나 웃고 싶은 양가적 감정에 빠지게 된다. 한 개인의 소외와 내적 갈등은 현실의 내부와 외부 어느 곳에서도 편안하게 머무르지 못하는 경계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양심 때문에 갈등하는 것으로 보아 파브뉴와 파리아의 삶 중 어떠한 것을 지향할 것인가를 놓고 갈등하는 양상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다.

그들은 못는다 내가 갓섰던곳을 / 무엇을 하였고 무엇을 어뎛는가를
/ 그러나 내무엇이라 대답할쏘 /.../ 나는 거기서 새로운 言語를 배웠고
새로운 行動을 배웠고 / 새로운 나라(國)와 새로운 世界와 새로운 肉體
와를 어뎛나니 / 여기 도라온것은 實로 그의 그림자 썬이로다

- 함형수, <歸國> 중에서(『만주시인집』)

이 시에서 화자는 어느 곳에도 귀속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 자신의 삶을 뒤바꾸어 놓은 만주에서는 “새로운 肉滯”이고 고향에서는 “그림자”일 뿐이다. 그는 예외의 존재, 자신이 귀속되어 있는 집합에 포함될 수 없으며, 또한 자신이 이미 항상 포함되어 있는 집합에 귀속될 수 없는

자이다.³⁶⁾ 이러한 존재는 살아 있는 죽은 자들이며 살아있을 가치가 없는 생명으로 분류된다. 이들의 삶은 철벽에 싸인 수감자들의 그것이며 자괴감을 불러올 뿐이다.

유치환의 시에는 살아있을 가치마저 부정당하고 만 디아스포라의 심정이 잘 드러난다. 시인에게 만주라는 공간은 탈주할 공간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진창에 갇힌 鐵壁 같은 絶望의 曠野”(〈曠野에 와서〉)이다. 내부에 존재하는 외부로서 살아있을 가치조차 박탈당한 생명은 “가장 남루한 나그네”(〈郭爾羅斯後旗行〉 중 ‘2. 桃李滿城’)이자, “소리없이 죽”어도 기억조차 할 필요가 없는 존재(〈絶命地〉)³⁷⁾로 전락한다. 만주국은 그 이데올로기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러한 호모 사케르를 계속해서 호출하였다. 거주민들에게 내부에 있는 외부인 호모 사케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스스로는 살아있을 가치가 있는 생명인 국민이 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만주국의 권위를 유지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절대적 권위를 지닌 만주국은 겉으로는 환상 공간으로서의 만주를 재현하지만 그 절대성의 이면에는 균열이 발생하고 있었고, 그 균열은 재만 조선인 시인과 같은 디아스포라의 위치에서 포착될 가능성이 높았다.

V. 결론

재만 조선인 시인들은 만주국의 허상과 실재를 체험하면서 그들만의 독특한 디아스포라 시세계를 견지하였다. 식민주의 의식을 뒤로 숨긴 채 만주국 주체는 오족협화나 왕도낙토와 같은 허울 좋은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만주 땅을 환상 공간으로 구성하려고 하였으나 식민주의 자체가 지닌 한계를 노정하며 균열을 발생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만주국

36) 조르조 아감벤, 앞의 책, 72쪽 참고.

37) 앞의 세 편의 시는 시집 『생명의 서』에 수록.

의 특성 다시 말하자면, 환상 공간으로서의 면모와 그에 내재된 균열 양상을 지칭하여 만주성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만주국의 이중적인 측면을 포착하는 데 있어 재만 조선인 시인들은 해안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어느 곳에도 소속될 수 없는 디아스포라의 위치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재만 조선인이 생산한 디아스포라 시문학에는 끊임없이 고향을 그리며 심정과 함께 희망을 주는 만주 땅에 정착하려고 하는 의지도 드러난다. 그러나 이러한 작품 외에도 만주의 현실을 비판하거나 애국시민으로 성공하려는 욕구가 좌절되고 마는 균열상을 보여준 시들도 있다. 고향을 마음에 묻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했던 만주국의 환상적 이데올로기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과 성공하려는 욕구의 좌절 앞에서 그 허상이 드러난다. 재만 조선인 시문학에서 디아스포라의 인식과 만주성의 재현 양상을 파악하는 것은 이전까지의 재만 문학 연구에서 주류를 이루어온 민족주의적 관점이 행한 저항과 협력 여부에 관한 재단이나 아니면 이론의 우세 속에 개별 작품의 사회, 시대적 정황 파악은 놓쳐버린 연구 방식과는 달리, 재만 문학의 복잡하고도 다양한 실재성을 고찰하는 연구 방법이 된다고 본다.

참고문헌

- 『北郷』 2호, 3호, 4호, 용정:북향사, 1936년, 1월, 3월, 8월.
- 『만선일보』 1939년 12월-1942년 10월
- 김조규 편, 『在滿朝鮮詩人集』, 연길:藝文堂, 1942.
- 박팔양 편, 『滿洲詩人集』, 길림:第一協和俱樂部 文化部, 1942.
- 연변대학 조선문학연구소 편, 『중국조선민족 문학대계⑤ 현대시집성』,
연변:흑룡강 조선민족 출판사.
- 김경일, 윤희탁, 이동진, 임성모, 『동아시아의 민족이산과 도시』, 역사비평사, 2004.
- 김려실, 「인터/내셔널리즘과 만주」, 『상허학보』 13, 상허학회, 2004, 8, 389-423쪽.
- 김철, 「몰락하는 신생 : ‘만주’의 꿈과 『농군』의 오독」, 『상허학보』 9, 상허학회, 2002, 9, 123-159쪽.
- 김훈겸, 「재만조선인 시문학의 디아스포라적 양상 - 일제말기 유치환, 김조규의 시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28, 한국언어문화학회, 2005, 147-176쪽.
- 박태일, 「청마 유치환의 북방시 연구 - 통영 출향과 만주국, 그리고 부왜시문」, 『어문학』 98, 한국어문학회, 2007, 12, 291-350쪽.
- 신주철, 「김조규의 이중적 시 쓰기의 양상과 의미 - 만주 이주 후-해방전 작품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32, 우리문학회, 2011, 2, 333-361쪽.
- 윤희탁, 「<만주국>의 ‘2등 국(공)민’, 그 실상과 허상」, 『역사학보』 169, 역사학회, 2001, 3, 139-171쪽.
- _____, 「만주는 동아시아에서 어떤 곳일까」, 『만주 - 그 땅, 사람 그리고 역사』, 고구려연구재단 편, 고구려연구재단, 2005, 10-23쪽.

임성모, 「팽창하는 경계와 제국의 시선 - 근대 일본의 만주 여행과 제국 의식」, 『일본역사연구』, 일본사학회, 2006, 89-113쪽.

한석정, 『개정관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 괴뢰국의 국가효과 1932-1936』, 동아대학교 출판부, 2007.

고모리 요이치 지음, 송태욱 옮김, 『포스트콜로니얼 - 식민지적 무의식 과 식민주의적 의식』, 삼인, 2002.

마루카와 테쓰시, 백지운, 윤여일 옮김, 『동아시아의 문화지정학 - 리저 널리즘』, 그린비, 2008.

야마무로 신이치, 윤대석 옮김, 『키메라, 만주국의 초상』, 소명출판, 2009.

요시미 슌야 외, 연구공간 수유+너머 ‘일본근대와 젠더 세미나팀’ 옮김, 『확장하는 모더니티』, 소명출판, 2007.

에드워드 W. 사이드, 김성곤, 정정호 옮김, 『문화와 제국주의』, 창, 2011 개정판.

조르조 아감벤, 양창렬, 김상운 옮김, 「인권을 넘어」, 『오늘의 문예비평』 60, 2006, 봄, 234-244쪽.

_____, 박진우 옮김, 『호모 사케르 - 주권 권력과 별거벗은 생명』, 새물결, 2008.

프래신깃트 두아라, 한석정 옮김, 『주권과 순수성 - 만주국과 동아시아 적 근대』, 나남, 2008.

호미 바바, 나병철 옮김, 『문화의 위치』, 소명출판, 2002.

<Abstract>

A Study on Korean diaspora poetry in Manchukuo about Manchusung

Kim, Young-Ju

Korean diaspora poetry in Manchukuo was focussed on their country, the others, the consciousness of diaspora, and etc. Especially, this study aims at the poetry about the consciousness of diaspora. These poetry show their nostalgia, the will of settlement, the real criticism, the success desire, and the place of insider but outsider. So these poetry speak for Manchusung that is characteristic of two different representation style, the one is a fantastic space and the other one is a crack of utopia in Manchukuo. Korean poetry in Manchuria during the time of Manchukuo were created by Korean diaspora poets who had made good use of their Manchusung experience. Korean diaspora poets in Manchukuo helped confirm the critical position about Manchusung. Their poetry represent the life style of insider but outsider in Manchukuo.

Key Words : Korean diaspora in Manchukuo, *Manchusung*, fantastic space, crack, nostalgia, will of settlement, real criticism, success desire, diaspora

- 논문접수 : 2011년 6월 30일
- 심사완료 : 2011년 8월 5일
- 게재 확정 : 2011년 8월 10일